



## 01 2025 년도 현비 유학생들의 칼럼

- 후쿠가와 구스타보(브라질 출신)
- 고다마 브루노 게이코(브라질 출신)
- 가와바타 폰세 케빈 미겔(페루 출신)

## 02 지사의 움직임

- 주일한국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2 월 10 일)
- 주일아일랜드대사관 데미안 콜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2 월 11 일)

##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 「히키메 의식」·「모모테 의식」 (12 월 7 일)
- 코시키키지마 도시돈(12 월 31 일)

📅Coming UP! 【2026 년 2 월,3 월 이벤트 정보】

## 01 2025 년도 현비장학생의 칼럼

2025 년도 현비 장학생 3 명이 가고시마에서 생활을 돌아보며 칼럼을 작성하였습니다.

### ○후쿠가와 구스타보(브라질 출신)

처음뵙겠습니다. 저는 후쿠가와 구스타보라고 합니다. 2025 년도 가고시마현 현비 장학생입니다.

2025 년 4 월부터 가고시마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입니다만 외증조부께서는 가고시마현 출신이십니다. 전쟁 전, 미나미사츠마시 가세다에서 브라질 과달라하라 지구로 이주하였습니다.

제가 태어나기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고시마현에 오기 전에는 가고시마의 문화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친할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아버지쪽 선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어머니쪽 친척들과 이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24 년 게이고라는 친구(같이 브라질에서 온 2025 년도 현비 유학생)가 가고시마 현인회를 소개시켜주어 그 멤버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부터 현인회에 계시는 전 현비유학생 아레산도레께서 현비유학생 프로그램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가고시마현에 온 이후에는 가고시마 문화와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머니쪽 혈통인 후쿠시마가(家)의 호적등본을 취득하여 선조가 사셨던 지역을 실제로 방문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과 일본의 인연을 다시 이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고시마대학에서 기념촬영

선조 찾기 이외에도 가고시마 대학에서 학업에도 정진하며 전공인 경영학을 더욱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법문학부에서 다양한 수업을 수강하며 지도 교수님들과 연구를 하며 경영학에 대하여 한층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테마로는 일본기업과 브라질에 있는 일본계 단체의 교류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테마를 통해 일-브관계가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며 다양한 자료와 기사를 조사하였습니다. 일본과 브라질의 인연은 상당히 깊은 역사를 갖고 있으며 상상이상으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고시마 대학 입학식

또한 가고시마의 전통과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오기온사 축제에서 3번미코시에 참가한 것 입니다. 마사토라고 하는 3번 미코시의 멤버에게 제안을 받고 본 축제뿐만 아니라 오기온사 축제 3일간 모든 행사에 참가하였습니다. 미코시를 견학할 뿐만아니라 다른 분들과 함께 미코시를 이고 축제에 담겨있는 문화와 정신을 더욱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문화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축제가 갖는 의미에 대해 그 날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온사 마츠리의 의상

또한 가고시마에서 생활을 통해 이 지역에 대한 인상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유학 전에는 가고시마현이 일본 최남단에 있는 지역이라는 정도 밖에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생활하면서 가고시마는 현재의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메이지 정부의 중심인물인 오키보 도시미치와 사이고 다카모리가 가고시마의 출신이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일본이라는 국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고시마의 피를 잇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0 개월 동안 일본에서 지내는 것은 정말 축복받은 시간이었습니다. 제 혈통을 찾는다는 목표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일본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일본 각지를 여행하는 등 많은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서도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멋진 경험을 제안해주신 가고시마현인회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과 친구들, 현청의 여러분, 국제교류협회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 만든 인연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 ○고다마 브루노 게이고(브라질 출신)

처음뵙겠습니다. 브라질 출신 고다마 브루노 게이고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일본 출신이십니다.

1932년 제 조부가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주하셨습니다. 조부는 가고시마현 우치노우라 출신이시며 브라질에서는 가고시마현인회에 참가하고 계십니다. 다른 조부와 조모는 가가와현, 오카야마현, 후쿠오카현 출신입니다.



4월에 가고시마에 와 약 10개월간 가고시마대학 법문학부에서 지역사회 코스(경제사회학과)에서 지역사회학을 공부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일본어 수업과 학과 수업에 참가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일본어를 많이 배우고 사용하면서 일본어 실력을 키웠습니다. 또한 학과 수업으로 브라질의 일본계사회(일본에 조상이 있는 브라질 사람)에 대해 공부하기 위해 「일본에서 브라질로 이민에 대하여」를 연구하였습니다.

브라질의 가고시마현인회에서는 2017년부터 활동을 하였으며 가고시마현 현비유학생 제도에 대해서는 매년 전 현비유학생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브라질 일본 마츠리에서 사츠마아게, 시로쿠마, 카샤모치(카샤의 잎으로 감싼 쫄쫄이로 아마미 지방에서 만들어진), 게이한, 가루칸을 만



브라질 일본마츠리. 일본현인회(2024년)

듭니다. 그러므로 일본에 오기 전부터 가고시마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많이 접하고 있었습니다.

유학 중에는 가고시마에서 제 조상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 조부의 오래된 집을 발견하였습니다. 우치노우라에도 가보았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가고시마에서 전통과 문화에 대해 다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히라마츠리에 참가하거

나 사이고 다카모리, 사츠마번의 역사, 가고시마 사투리 등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가고시마현의 후지모토 부지사님과 만날 기회와 다른 나라의 가고시마현인회 분들과 만나며 가고시마의 낙도인 다네가시마와 야쿠시마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나가부치 츠요시의 라이브에도 다녀왔습니다!!(브라질에서는 “잠자리”와 “건배”가 유명합니다). 라이브에서는 “언젠가의 소년”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후지모토 가고시마현 부지사 예방



사쿠라지마에 있는 나가부치 츠요시 기념비

브라질에 돌아간 뒤에는 가고시마현인회의 활동을 다시 시작하여 브라질에서 가고시마의 문화와 역사를 계속해서 소개하는 일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번 일본 유학을 통해 전부터 느끼고 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친척들은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저는 일본의 피를 잇고 있어도 브라질인으로서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선조들을 존경하고 그 마음을 이어 받아 비로서 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브라질 가고시마현인회는 제 선조들의 소중한 장소(가고시마)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저는 앞으로 그 걸음들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장래에 이 아름다운 땅 가고시마에 돌아올 날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루 가고시마현인회의 케빈과  
도미니카 가고시마현인회의 류우키



## ○가와바타 폰세 케빈 미겔(페루 출신)

처음뵙겠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온 케빈 가와바타입니다.

2025년 4월부터 10개월동안 가고시마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친구 쪽에 일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조부모는 가시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조부는 이부스키 출신, 조모는 마쿠라자키 출신입니다. 조부는 1929년에 페루로 이주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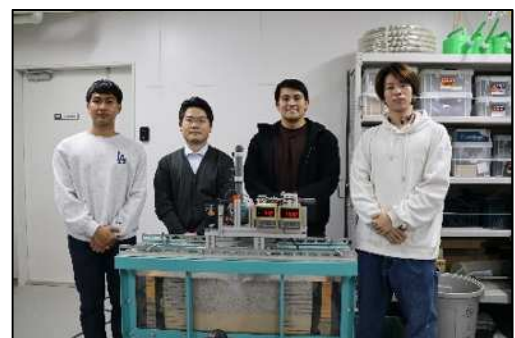
제가 가고시마에 온 이유는 아버지의 뿌리와 연결되고 싶어서 입니다. 저는 친조부모와 말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일본의 선조들에 대해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13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과 어머니가 아버지께 대한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말해주셨지만 점점 기억은 흐려져 갔습니다.

아버지도 전에 일본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지만 가고시마를 방문한 적은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가보고 싶다”며 새어나오는 마음의 소리를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실제 제가 이곳(일본)에서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은 저에게 있어 단순한 여행과는 다르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세대도 전부터 이어온 꿈의 실현이며 특히 저희 아버지가 꿈꾸던 꿈을 제가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며 그의 인생과 자라온 환경, 그리고 몇몇 습관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있어서도 매우 귀중한 경험입니다. 또한 이런 기회를 살려 학술적 전문적인 지식을 더욱 쌓고 싶습니다.

저는 페루에서 토목공학(지반공학)을 전공하여 토목기술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가고시마 대학에서는 해양토목공학과가 있으며 우수한 토질시험용의 실험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더욱 지식을 쌓고 싶은 전분분야와 직접 관계가 있습니다.



가고시마 대학 토양학연구실

현재 제가 가고시마 대학에서 하고 있는 연구는 특정

중량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더했을 때 흙의 변형을 측정하는 것이며 실험 대상의 흙은 갑골류의 잔해를 포함하는 모래가 포함된 특징적인 흙입니다. 변형의 측정은 이 흙을 형성하는 모

래와 생물기원재료를 각각의 비율로 배합하여 흙을 최적의 혼합비율로 특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흙의 밀도와 그 외의 중요한 물리특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장래 페루에 귀국했을 때 제가 추구하고 있는 연구의 기초가 될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 만날 기회가 없었던 일본의 친척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쿠라자키에 사는 제 숙모들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외할머니의 여동생과 그 따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일본어외에는 구사할 수 없었지만, 대학에서 매일 들었던 일본어 수업 덕분에 문제 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깊은 인연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마쿠라지키의 친척집을 방문했습니다

전에는 몰랐던 일본문화의 다양한 측면, 예를들면 축제나 사원, 전통적인 의식 등을 더욱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페루에서는 이런 문화에 대해 매우 기본적인 이해만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의미와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고 더 깊은 시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풋살 팀 멤버들과

또한, 지역 사람들과 다른 유학생들과 친분관계를 쌓은 것도 아주 소중한 경험입니다. 특히 스포츠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친구가 되어주었으며 일본문화를 배우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가고시마에서의 생활에는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눈을 뜨면 창문 밖으로 보이는 사쿠라지마를 바라보는

것은 제일 흥미로운 경험입니다. 도시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는 활화산을 보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얼마나 조화하며 공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는 자전거로 동네를 구경하는 것 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보다보면 가고시마를 더욱 가까이에서 일상적인 시점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가고시마에서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고시마는 저에게 제 2의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도시를 여행한 후 가고시마에 돌아오면 도용한 동네와 침착한 분위기에 언제나 마음이 놓이곤 합니다.

이번 가고시마에서의 유학은 제 인생에 있어서도 큰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면에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습관과 지식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의 생활에서 다양한 것에 도전해 나가고 싶습니다. 또 언젠가는 일본에 다시 방문하여 만났던 친구들과 더욱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일본어 학습도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배운 것은 직업생활뿐만 아니라 제 생활에도 적용하여 자기 자신을 더욱 좋은 인간, 그리고 우수한 전문가로서 성자알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일본계 젊은이들의 뿌리와 이어주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주신 가고시마현과 가고시마현 페루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여행의 순간 순간에 만난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족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 경험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하라마츠리에도 참가하였습니다

## 02 지사의 움직임

### ○주일한국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2 월 10 일)

한국 이혁 주일대한민국 대사가 가고시마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이혁 대사는 한일국교정상화 60 주년이라는 기념적인 해에 좋은 한일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방간의 교류를 시작으로 경제와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지금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여러분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것과 60 주년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과 가고시마의 교류관계가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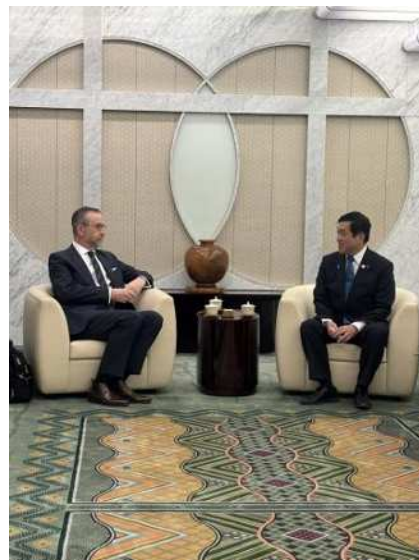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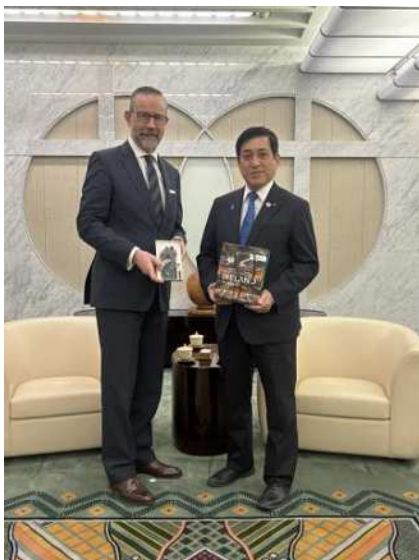


▲주일본한국대사관과 주후쿠오카총영사관  
여러분들과 기념촬영

### ○주일아일랜드대사관의 데미안 콜 대사가 방문하였습니다 (12 월 11 일)

아일랜드의 데미안 콜 주일아일랜드대사가 현청을 예방하였습니다. 데미안 콜 대사는 10 월 에 열린 아일랜드의 하프와 사츠마 비파의 콜라보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와 농업과 산업면에서 아일랜드와 가고시마의 관계성을 돈독히 다지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시오타 지사는 우리현의 풍부한 자연과 식문화 등의 매력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이 가 고시마현과 아일랜드의 교류를 한 층 더 깊은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 03 가고시마 이벤트 정보

#### ○「히키메 의식」·「모모테 의식」(12 월 7 일)

시마즈가문의 별장 센간엔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오가사하라류의 궁술의식인 「히키메 의식」과 「모모테 의식」이 실시되었습니다.

히키메 의식은 병마를 쫓는 의식으로 화살을 쏘아 화살촉이 바람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 소리가 병마를 쫓아낸다고 합니다. 모모테 의식은 무사가문의 예법에 따라 활을 쏘면서 소원을 빌고 마귀를 쫓는 의식이며 17 년만에 실시 되었습니다.

당일에는 800 년이상 전승되어 온 가마쿠라 무사의 아름다운 궁도 기술과 세련된 움직임을 선보였습니다.



▲「히키메 의식」,「모모테 의식」의 모습. 사진제공-센간엔

#### ○고시키지마 도시돈(12 월 31 일)

도시돈은 시모코시키지마의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새해 전날에 행하는 전통행사이며 종려 나무와 소철의 이파리나 종이 등으로 만든 30 센치미터 정도의 높은 코, 귀까지 찢어져 있는 입을 가진 빨강고 파란 큰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시키지마의 도시돈은 어린아이들과 대화하며 그 아이들이 착한 일이나 잘한 일을 칭찬해주고 결점과 단점에 대해 지적하여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시키지마의 도시돈과 약속한 보상으로 「도시모치(떡)」을 받습니다. 축복신인 도시돈에게 받는 「도시모치」를 먹으면 무사히 나이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무형민족문화재에 지정되어 2009년 9월 30 일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도 등록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 29일 사츠마 이오지마의 멘돈, 아쿠세키지마의 보제 등 9개 행사를 추가한 「내방신:가면, 가장을 한 신들」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확장등록 되었습니다.



◀도시돈이 마을의 아이들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출처 : 가고시마현 HP

## 🍷Coming UP ! 【2026년 2월,3월 이벤트 정보】

### ◇2월

16일 가지히키 축제(가노야시)

22일 소주 투어 가고시마 2026(이치키쿠시키노시, 화요키시)  
화요키시 대용은이쪽으로↓

### ◇3월

8일 가고시마신궁 첫 오제(가고시마시)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 편집 후 기 (가고시마현 관광·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자 여기서 2026 년은 무슨 띠의 해인지 아시나요?  
올해는 말 띠의 해 Year of the Horse 입니다!  
12 간지 중에서도 말은 "성장, 성공, 번영"을 상징하는 굉장히 기운이 좋은 간지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두근두근하게 되네요\(^o^)/

이 메일 매거진도 전보다 더욱 "가고시마의 지금"을 즐겁에 전해드리기 위해, 독자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발견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올해도 잘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웃는 얼굴 가득한 1 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가고시마 남쪽바람소식 게시판」에서는 가고시마에 관한 화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 및 게재합니다.  
☆가고시마 포토 갤러리

가고시마만의 매력이 담긴 사진이나 해외에서 발견한 가고시마의 사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더미처럼 쌓인 화산재 봉투)  
그외에도 전세계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싶은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 기사 제공 및 문의처 ▲▽▲▽

일본 가고시마현 관광 · 문화스포츠부 국제교류과  
〒 890-8577 가고시마시 가모이케 신마치 10-1  
TEL: +81-99-286-2306  
FAX: +81-99-286-5522

↓전자메일 주소

영 어 : [cir1@pref.kagoshima.lg.jp](mailto:cir1@pref.kagoshima.lg.jp)  
중국어 : [cir2@pref.kagoshima.lg.jp](mailto:cir2@pref.kagoshima.lg.jp)  
한국어 : [cir3@pref.kagoshima.lg.jp](mailto:cir3@pref.kagoshima.lg.jp)  
일본어 : [minami@pref.kagoshima.lg.jp](mailto:minami@pref.kagoshima.lg.jp)

가고시마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kagoshima.jp/>

가고시마 관광사이트



<https://www.kagoshima-kankou.com/>

※ 이 기사의 저작권은 가고시마현에 있습니다. 무단 게재와 불법복사를 금합니다.